



AI 활용한 영화 오스카 수상 가능

美 시상 주최 측 규정 전격 완화
“인간이 창의적 저작 주도하면
범위 고려해 성취 판단하겠다”
작가·배우노조 반대 거세지만
시류 반영해 ‘금기타파’ 큰 변화

영화계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작품도 후보 선정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AI 관련 내용을 포함한 내년 시상식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

이 단체의 새 규정에는 “영화 제작에 사용된 생성형AI, 다른 디지털 도구들과 관련해 그 도구들은 (수상) 후보로 지명되는 기회를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이 규정에는 “아카데미와 각 분과는 수상작을 선정할 때 인간이 창의적 저작의 중심에 있는 범위를 고려해 그 성취도를 판단할 것”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AI가 영화 제작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만으로도 아카데미의 큰 변화라고 짚었다.

앞서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의 노동조합은 2023년 동반 파업 당시 영화 제작 현장의 AI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 현장에서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월 오스카 시상식을 앞두고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브루탈리스트’가 배우들의 헝가리 역양을 강조하기 위해 AI 기술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주연배우 에이드ريان 브로디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이 영화가 3관왕을 차지했다.

다른 아카데미 후보작인 ‘에밀리아 페레즈’와 ‘둔: 파트2’도 AI 기술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각 여우조연상·주제가상과 음향상·시각효과상을 받았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는 AI 앱으로 자기 반려견을 사람처럼 바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NYT는 AI를 둘러싸고 영화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제니, 13곡 라이브로 ‘코첼라’ 마무리

빌보드 ‘코첼라 1주차 핫 퍼포먼스’ 선정
관객 ‘제니’ 연호, 폐창과 함성으로 화답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사진)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2주차 무대에서 13곡을 열창했다.

22일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제니는 ‘코첼라’의 대형 스테이지인 ‘아웃도어 시어터’에 올라 ‘라이크 제니’ 등 솔로 1집 ‘루비’(에 수록된 노래들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제니’를 연호하고, 폐창과 함성으로 화답했다. 제니는 무대를 마치며

“오늘 제 공연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3일에도 같은 무대에 오른 그는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코첼라 1주차 핫 퍼포먼스’에 K팝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 무대 영상은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2위, 인기 급상승 동영상 3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세븐틴, 3년 만에 정규 5집 발표

그룹 세븐틴이 다음 달 26일 정규 5집 ‘해피 버스트데이’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세븐틴이 정규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 2022년 4집 ‘페이스 더 선’ 이후 약 3년 만이다.

앨범 제목 ‘해피 버스트데이’는 생일을

뜻하는 ‘버스트데이(Birthday)’와 터뜨린다는 의미의 ‘버스트’(Burst)를 합친 것으로 ‘새로운 세븐틴’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앨범 발매일은 2015년 5월26일 데뷔한 세븐틴의 10주년 기념일이다.

플레디스는 “세븐틴은 올해 데뷔 10주

10주년 기념일인 내달 26일
앨범 ‘해피 버스트데이’ 예정

년을 맞아 정규 5집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와 무대로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캐럿’(팬덤명)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븐틴은 24·26·27일 교세라 돔 오사카와 다음 달 10·11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일본 팬 미팅을 앞두고 있다.

가요소식

TXT가 전하는 청량한 에너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다음 달 2일 오후 1시 새 디지털 싱글 ‘러브 랭귀지’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2일 밝혔다.

‘러브 랭귀지’는 아프로 하우스 장르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특유의 청량한 에너지가 더해진 곡이다. 멤버 휴닝카이(가) 작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신곡 발표 후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에 잇따라 출연해 ‘러브 랭귀지’ 무대를 선보인다.

5인조 걸그룹 VVS 오늘 데뷔

신인 걸그룹 VVS가 22일 첫 싱글 ‘티’를 내고 데뷔한다고 소속사 MZMC가 밝혔다. VVS는 브리트니아·아일라·라나·지우·리원 다섯 멤버로 구성된 팀이다. 일본에서 활약한 데뷔 싱글 ‘티’ 뮤직비디오는 숨막히는 액션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